

차기 금융위원장 유력, 은성수 누구인가

세계銀 거친 행시 27회 ‘국제금융 통’… 최종구와 경력 유사

(금융위원장)

文대통령 개각 단행 예정
금융위원장 교체도 포함
은성수, 윤종원, 김용범 거론
9월 중 임명절차 마무리

오는 9일 청와대 개각을 앞두고 차기 금융위원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력 후보로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과 윤종원 전 경제수석 등 관료 출신이 거론된다. 차기 금융위원장은 9월 중 임명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9일 장관 및 장관급 부처 6~7곳을 대상으로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는 지난 7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차기 금융위원장 교체도 포함될 예정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후보군으로 관료 출신인 은성수 수출입은행장과 윤종원 전 경제수석, 김용범 전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주요약력

1983 제27회 행정고시 합격
1984 재무부 투자진흥과 사무관
1997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과 서기관
2003 재정경제부 금융협력과 과장
2005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실 선임행정관
2010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
2014 세계은행(World Bank) 상임이사
2016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2017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금융위 부위원장을 두고 인사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원장은 국회 청문회를 거치기 전 청와대가 사전 인사검증을 한다. 현 정책 방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회 청문회 통과를 쉽게 하기 위해서 경력관리가 된 관료출신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다. 행정고시 27회 출신인 은성수는 공직에 입문한 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과 세계은행(WB) 상임이사,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등을 거치며 ‘국제금융전문가’로 입지를 굳

혔다.

은성수는 최 위원장의 경력을 그대로 밟아왔던 점에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은성수는 최 위원장의 두 기수 후배로 두 사람은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무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2011년 최 위원장이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에서 국제경제관리관으로 옮길 당시 후임국장을 은성수가 맡았다. 최 위원장이 금융위원장에 올 적에도 은성수는 최 위원장의 추천으로 수출입은행장이 됐다.

윤종원 전 경제수석도 유력후보 중 하나다. 윤 전 경제수석은 은성수와 행정고시 27회 동기로서 재무부, 재정경제원 기재부에서 함께 일을 했다. 다만 윤 전 경제수석은 재무부 경제정책국장,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등을 역임해 은성수보다 공직 경력에 한 발 앞섰

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윤 전 경제수석은 지난 달 발표된 금융위 과장급 인사에 윤 전 경제수석과 기재부에서 오랜 기간 호흡을 맞췄던 이기 비서관에 오르면서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차기 금융위원장이 윤 전 경제수석에게 비서관 임명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것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다만 김용범 전 부위원장은 국내 금융정책, 서민관련 전문가로 알려져 있지만, 전직 금융관료들에 비하면 아직 젊어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오는 9일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발표되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을 논한다. 임명절차는 최대 30일 가량 소요돼 내달 중순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지난 7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가운데)이 신입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진 후 함께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진옥동 “시간과 상황을 지배하라”

(신한은행 행장)

임행한 신입직원에게 경험 전해

신한은행은 지난 7일 진옥동 행장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연수원에서 신입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월 마무리된 2019년 상반기 채용을 통해 임행한 신입직원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진 행장은 은행장으로서 맞이하는 첫 번째 신입직원을 특별히 기억할 것이라며, 지난 30여년 간 금융인으로 살아오며 느끼고 경험했던 바를 허심탄회하게 전했다.

특히 진 행장은 “신입직원들이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각자의 역할이 달라진다”며 “시간과 상황을 지배하는 직원이 되어달라”

고 당부했다.

진 행장은 “시간을 능동적으로 활용해 본인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목적을 가지고 단계마다 스스로 시간을 지배해 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 상황에 대해서 그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을 대비해 필요한 원칙과 내용을 정확히 알고, 지난 상황을 정확히 복기해 개선점을 찾아가자”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진 행장은 신입직원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와 자존감에 대해 설명하며 “여러분의 가치가 올라가면, 신한은행의 가치는 당연히 올라간다”며 “자존감을 갖고 시장의 최고 전문가, 나아가 금융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재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신협, 금융취약계층 위한 혁신적 대출 선보여

“1000만원까지 8.15% 내 금리로 쓰세요”

‘신협 815 해방 대출’ 출시
년 3.1~8.15% 금리 전환

신협중앙회가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신협 815 해방 대출’을 선보였다.

신협 815 해방대출은 높은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는 서민·자영업자·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신협이 1000만원까지 연 3.1~8.15% 이내의 금리로 전환해주거나, 신규 대출의 길을 열어주는 상품이다.

신협중앙회는 지난 6일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신협중앙회관에서 신협 815 해방 대출 활성화를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전국 신협 임직원 300명이 참석했으며, “한국금융의 힘, 신협 815대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란 슬로건으로 ‘고리채 추방 퍼포먼스’와 함께 신협이 불법·탈법·고금리 대출로부터 서민의 고통을 해방시키는데 적극 앞장서자는 결의를 다졌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신협 815 해방대출은 최근 신협이 제시하고 있는



지난 6일 신협중앙회는 ‘신협 815해방 대출’ 활성화를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

‘평생 어부바’라는 슬로건이 품은 신협만의 철학과 사회적 가치를 담은 상품”이라며 “순수 국내자본이자 민간 금융협동조합의 출발점인 신협이 거대 외국계자본으로부터 대한민국 서민들을 지켜내는 동시에, 포용금융을 통해 금융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징적인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는 금융취약계층들이 감당하기 버거운 채무의 굴레에서 헤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신협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상품을 개발한 정관석 신협중앙회 여신지원팀장은 8일 “대출금리를 8.15%로 이내로 지원한다는 뜻에서 815란 이름을 붙였고, 빛에서 ‘해방’시킨다는 의미로 광복절인 8·15를 차용했다”며 “기존의 고금리 대출자나 신규대출이 필요한 고객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우리 삼성페이’ 첫 환전시 100%환율우대

우리은행 내년 7월까지 이벤트

우리은행은 현재 진행 중인 우리 삼성페이 첫 환전 100% 환율우대 이벤트를 내년 7월 17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우리 삼성페이에서 환전 가능한 통화는 주요통화(USD·JP·EUR)를 포함해 16종이며, 환전 가능금액은 원화기

준으로 일 최대 100만원이다. 우대율은 환전 결제방식에 관계없이 주요통화 85%, 기타통화 45%(단, VND는 20%)가 적용된다.

특히, 주요통화의 경우 내년 7월 17일까지 우리 삼성페이 첫 환전고객 대상 최초 1회에 한해 100% 환율우대가 적용되며,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서 환전 신청 당일 수령도 가능하다. /홍민영 기자

“휴면예금 활용 사업 성과관리 강화해야”

입법조사처 보고서 통해 지적

서민금융진흥원이 실시하는 휴면예금 활용 사업의 성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휴면예금 관리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서 서민금융진흥원이 휴면예금의 활용 계획과 결과를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016년부터 금융회사로부터 출연받은 휴면예금을

저소득층 창업자·사회적기업·전통시장 영세상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누적된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잔액은 1조4000억원 규모다. 이 중 휴면예금을 활용한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상품과 전통시장 대출상품의 연체율은 각각 43.1%와 27.9%를 기록했다. 일반 미소금융상품의 연체율이 4.6%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홍민영 기자

KEB하나은행 ‘환전지갑’

거래 100만건 넘어

KEB하나은행은 작년 11월 출시한 환전지갑 서비스(이하 환전지갑)가 출시 10개월 만에 거래 100만건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환전지갑은 KEB하나은행의 모바일 환전서비스로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미국달러, 유로화 등 총 12종의 외화를 손쉽게 환전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신청 당일 영업점을 통한 수령도 가능하다. /홍민영 기자